

# 5부

1970년 11월 13일

---

인터뷰 5회차

2020년 4월 13일(월) 14:00~17:30

---

전태일 친구들

최종인

나는 '태일이의 정의'를 살아가는 신조로 삼아요. 태일이가 정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정의롭게 살아야겠다. 절대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자' 하고 살아갑니다.





## 1. 평화시장의 실태조사

**이수호** 전태일의 친구들 노동구술기록사업이 이제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한 번 남았는데요. 오늘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들 해주시고, 이를 기록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태일평전』의 순서에 따라서 인터뷰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은 평전의 마지막 부분이자 전태일 열사가 분신행거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다룬 평전의 5부 「1970년 11월 13일」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전태일의 지근거리에서 직접 그 과정을 목격한 친구분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말씀들을 해주셨습시다만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처럼 오늘 더 자세한 말씀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또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사실을 보충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 못지않게 당시 상황에서 전태일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친구분들 각자의 행동, 생각과 느낌 같은 것들. 벌써 50년이 지났습시다만 50년이 지난 지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해 70년 9월에 전태일이 다시 청계천 평화시장으로 내려와서 9월 16일에 삼동회를 정식으로 결성하잖아요. 그때부터 11월 13일까지. 우리 이승철 형님께서 늘 ‘운명의 55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간을 오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생각나는 게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서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회를 맡은 이수호입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특히 작가님을 비롯해서 촬영팀, 촬영감독님, 이숙희 위원장님, 우리 실무팀들. 오늘도 격려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승철** 이승철입니다.

**김영문** 반갑습니다. 김영문입니다.

**최종인** 최종인입니다.

**임현재** 임현재입니다.

**이수호** 그림 첫 번째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전 5부에서는 다시 평화시장에 나타난 전태일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삼동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방송국을 통해서 봉제노동의 실태를 알리려던 전태일은 보도를 하려면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담당자의 말에 평화시장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9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만들게 되죠.

이전의 바보회 사례에서 보듯이 실태조사나 진정서를 받는 과정이 무척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다행히 그전보다는 비교적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서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평화시장으로 와서 9월 16일에 삼동회를 결성하고 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가는데 그때 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전태일과 함께하게 됐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는데.

말씀하실 때 참고할 내용은 방송국에 갔을 때 전태일의 태도와 담당자의 태도는 어땠는지. 바보회 사례에 비추어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업주들에게 받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또 설문과 서명을 받을 때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싱사나 시다, 재단사 등 다른 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하셨는지.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방해할 하거나 사업주 측에 알리는 사람은 없었는지. 또 어떤 직역, 그러니까 미싱사, 재단사, 시다, 보조 등이 있는데 어느 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설문에 서명하고 호의적으로 대했는지 등등의 말씀을 참고로 해주세요.

전태일이 평화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 삼동회를 조직하고 설문조사하는 시기까지 생각하면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평전에는 첫 이야기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김개남을 찾아가 만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영문이 형님께서 먼저 (웃음) 말문을 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문**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찾아오기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평화시장에 있다가 동화시장으로 옮겼을 텐데 그때도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태일이 와서 자기가 생각했던 구상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바보회 때 실패했던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바보회 친구들은 69년, 70년 초에 군대들을 갔어요. 그래도 남아 있는 친구들이 몇 있었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이미 만나던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을 더 모으고. 오랜만에 내려왔어도 그 생각을 쫓았던 것 같아요. ‘만나서 뭔가 의논을 하자. 새

로운 조직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자 고뇌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바보회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듣는 쪽에 가까웠지 실제로 같이 움직였던 친구들은 없었다고 봅니다. 당시 바보회 자체는 친목으로써 모임 시작 단계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수호** 삼각산 기도원으로 가서 한 5개월 만에 다시 나온 거죠?

**김영문** 예.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웃음) 나도 오래돼서.

**이수호**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김영문** 그렇죠.

**이수호**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김영문** 바보회 때도 그렇고 태일리와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이번에도 어떻게든 여론화를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다든지. 바보회 때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얼마 되지 않는 자료로는 노동청이든 어디든 받아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걸 좀 보강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래. 그건 하자”고 했는데 업주들이 방해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장마다 책임자들이 거의 친척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후배, 선배를 찾아가서 받는 과정이 정말 힘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성숙해졌잖아요. 어떻게 됐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성숙한 마음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사람을 규합하여 우리가 뭔가 만들어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원래 잘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수호** 그리고 난 뒤에 평전에 보면 우리 최종인 선생님하고 이승철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가명으로 돼 있죠. 차정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분이 이때 전태일을 만나고 같이 가장 가까이에서 힘을 모으는 그러니까 그제야 비로소 동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영문이 형님은 늘 가까이 있어서 바보회 때부터 친근하게 지내고, 찾아가서 얘기도 해온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다음 얘기를 누가? 어디 승철 씨.

**이승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평화시장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것은 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그저 어떻게든 기술을 배워서 재단사가 되면 월급을 많이 받고, 많이 받으면 시골에 부모님한테 보내주고 하는 생각만 있었고.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김영울을 통해서 최종인이, 임현재, 주정배, 이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냈었어요. 1년 전부터 최종인 임현재 나 셋이 등산을 다니게 됐어요. 등산을 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관악산도 가고 삼각산도 가고. 삼각산에서 우리 셋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날이 제가 기억하기는 9월 18일, 추석 쇠고 한 3~4일 후 같아요. 한 닷새 정도 쉬었던 걸로 생각해요. 대목이라 밤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8일 11시경에 종인이가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같이 나오게 됐어요. 우리 형님네 집에서 둘이 같이 살았거든요. 11시쯤 평화시장, 그러니까 분신

한 인간시장 그곳에 왔는데 갑자기 전태일이 나타났어요. 종인이가 “언제 왔냐?” 태일이가 “삼각산에서 이제 내려왔다” 그래요. 종인이가 내게 “야, 애, 재밌는 애니까 인사해라” 그래서 서로 “전태일입니다” “이승철입니다” 인사를 주고받았죠. 그리고 “나, 지금 동양방송 <시민의 소리>에 고발하러 가는데 시간 있으면 같이 갈래?” 그러니 종인이가 “그래, 같이 가자” 하면서 셋이 가게 됐어요.

그때 동양방송이 서소문에 있었죠. 종로에서 거기 가는 시내버스가 있었어요. 그때 시내버스는 지금하고 다르게 창문이 아래로 좌석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고, 지하철처럼요. 태일이가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 근로기준법 책을 펼쳐들고는 아주 큰 소리로 나더러 “근로기준법 아느냐?”고 묻자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른다 했더니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밤늦게까지 일한다”면서 42조 근로시간, 45조 주휴일. 그리고 71조인가 건강진단도 있고, 뭐 생리휴가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4개 조항을 막 이야기하는데 난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아주 멍했죠. 그런 법이 있으면 우리가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아주 깜짝 놀랐죠.

서소문에 내려서 동양방송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걸어서 올라가는데, 4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종인이라 나 가만있고 태일이가 ‘시민의 소리에 고발을 하러 왔다’고 하니 담당자가 나왔는데 아나운서였는지도 모르겠어. 태일이가 평화시장에 2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일요일도 쉬지 않고, 근로시간도 아주 길다고, 그러니 기사를 내달라고 했어요. 담당자가 가만히 듣고 나서 객관적이니 주관적이니 이런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그 양반 이야기가 ‘주관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고발이 있지 않으면 낼 수 없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겠다 실망하고. 그리고 그때는 근로감독관이 서울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청이었고.

이수호 노동청이었죠.

**이승철** 서울시청 근로감독관을 만나러 가자, 만나서 고발하자고 해요. 서소문에서 시청이 가까워요. 거기 도착하니까 12시가 좀 넘었어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점심을 먹으러 가고 없다고 해서 못 만나게 됐어. 그때 최종인은 1시에 인간시장 쪽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너가 만나 보고, 우리는 간다” 그러고 돌아왔었죠.

돌아와서 우리는 불일을 보고, 평화시장 상가 가게들 옆으로 커다란 파이프로 차가 오면 못 들어오도록 기다랗게 쪽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가 앉아 있기 좋은 높이예요. 거기가 임현재를 비롯해 쉽게 말해서 친구들이 다 모이는 곳이야. 그때는 난 영문이를 몰랐던 때고, 그리고 일들 잘 보고 2시 훨씬 넘어서까지 있었어. 한 3시쯤인가 태일이가 왔어. 그런데 갈 때와는 다르게 조금 흥분되어서 왔더라고요. 근로감독관을 만났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노동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청소년회관인가 을지로 2가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노동청이 있었어요.

태일이가 노동청에 갔다가 어떻게 기자들을 만났나 봐. 6층에 기자실이 있었는데 기자가 6층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가 기자들에게 설명했더니 그렇게 막연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단체를 하나 만들고 실태조사를 해서 부당하다는 내용을 근로기준국장실에 고발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신문에 내줄 테니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에게 보여 달라고 했다, 그러더라고.

태일이가 아주 흥분이 돼 있었어. 그리고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일요일마다 놀면 등산을 갈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딱 인이 박인 거예요. 나는 영문이처럼 말을 차분히 듣고 있는 편이 아니라 말을 빨리 하는 편이야.

하여간 종인이랑 친구들이 모여 있길래 “야, 전태일이라는 애가 뭐 이러고저러고 한다, 그러니까 개 오면 한번 만나 보자, 일요일마다 놀 수 있다 그런 법도 있다는데” 어찌고 하며 들떠서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럼 그 애 한번 만나 보자고. 그 자리에 여덟 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셋 이외 나머지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2~3일 후에 태일이가 바보회를 같이했던 영문이랑 그리고 몇 사람 모아서 만나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 하여튼 그래서 저는 삼동친목회를 만들게 되면서 그때 만났던 겁니다.

**이수호** 그래요. 구체적으로 필요했으니까 그런 계기가 있어서 전태일이 삼동친목회를 결성하죠. 그 과정은 이제 우리 종인 형이 같이 있었으니까.

**최종인** 그 과정은 승철이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승철이는 기억력이 좋고 아주 머리가 똑똑하다 했잖습니까. (웃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 나는 지금 동양방송에 가고, 시청에 가고 했던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이수호** 같이 가긴 했는데.

**최종인** 같이 가긴 했죠. 태일이하고 처음부터 행동을 같이했으니까. 저는 가정집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태일이가 삼각산에 가고 5개월 있다가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노는 걸 좋아하니까 바보회에서 얘기된 근로조건 개선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이야기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인간적으로 좋은 놈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놀러 갈 때는 같이 다녔는데 그걸 보면 아마



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삼동친목회를 만들면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동친목회 주 멤버들이 태일이, 이승철, 임현재, 저, 김영문 그리고 신진철. 신진철이도 원래 태일이하고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제 친구예요. 또 주현민이라고 있어요. 주현민이도 우리 친구고, 노조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열심히 했었죠. 그 멤버들인데 근로기준법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친목회를 정식 발족해서 서기를 뽑고, 총무를 정하고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하기에 시장의 근로환경을 우리들 약자들 힘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데 대단한 매력을 느꼈어요. 이런 일은 젊은 우리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그리고 평화시장은 어디서든 고용한다고 하면 안면으로도 아무 데나 취직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업주들의 눈치나 공장의 눈치를 보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이수호** 그냥 알음알음으로.

**최종인** 알음알음으로 취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공장에 딱 찍혔다고는 생각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해보자고 하고, 제가 앞장서서 공장에 실태조사를 나갔어요. 특히 시다들이 주로 많이 대답했고. 태일이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미싱사들을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때 승철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씩 시간을 냈고. 저는 중부시장 공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태일이랑 그 일로 나섰죠.

**이수호**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최종인** 그 일이 재미있었고, 일하던 공장에서 다니기도 멀고. 그런 생각으로 임현재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수호**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같이 다니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임현재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도 말씀해 주시고. 실태조사는 다 싫어하죠. 업주들은 더 그렇고. 혹시 실태조사를 하는데 싫어하고 방해받은 그런 기억은 없으신지.

**임현재** 삼동친목회를 결성했던 회의 과정에서와 그 이후 회의 결의에 따라서 동양방송국이나 이런 데 갔다 온 경위를 설명 듣고 앞으로 활동 방향을 잡으며 실태조사가 등장했고. 실태조사 할 때 전혀 모르는 공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공장이나 같이 일했던 미싱사, 재단사 있는 데 가서 했죠. 그래서 크게 방해를 받았다고보다는 오히려 방해를 미리 피하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고요. 그때 상황이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실태조사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과거에 일했던 삼화사에 가서 미싱사나 시다들한테 받고. 그전에 일했던 세진사도 갔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알고 지냈던 다른 재단사들이 있는 공장들, 주로 그런 곳 위주로 다녔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 설문지 매수를 많이 모을 수 있어서 그걸 근거로 노동청에 갔고.

**이수호**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주로 전태일하고 친구들이 같이 다니면서 평소에 알거나 전에 근무했던 직장 중심으로 방문해서 먼저 재단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밑에 미싱사나 시다들 받고 했는데요. 우리 영문 씨는 늘 착실하게 일하고. (웃음)

**김영문** 그렇죠. 실태조사를 시행할 때는 자기 아는 공장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저는 주로 평화시장하고 동화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수호 아! 그래서.

이승철 그걸 갖고 태일이가 노동청으로 갔었고. 종인이가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정을 내기 전에 노동청 출입기자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노동청에 접수를 했고. 그런데 다들 경향신문에만 기사가 난 걸로 알죠. 10월 6일 자 경향신문은 사회면에 ‘골방에서, 다락방에서 열 여섯 시간’이라고 나왔고, 동아일보도 2면에 세로로 ‘평화시장 2만 7천 명 직업병에 시달린다’는 제목으로 크게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맨날 경향신문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봤는지 그날 경향신문에 임정삼 국장의 인터뷰도 실렸어요. 범법 행위가 있으면 자기가 시정시키겠다고 이야기했던군요. 그래서 10월 6일 그날 신문에는 대대적으로 평화시장 기사가 나게 됐죠.

이수호 하여간 평전에 의하면 진정서를 내는데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어떻든 90명 명단을 모아서 진행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앞에서 주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삼동회는 처음 결성할 때는 열두 명, 열두 명의 용사들이 딱 모여서. (웃음)

임현재 전태일 씨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사도를 모방하지 않았나. (웃음) 그 사람이 그런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았어요.

이승철 예수님의 제자 언제 그런 이야기했어. 지금 생각이지. (웃음) 그때는 그런 생각 어디 했어.

임현재 사실 생각해 보면 여기는 다 직업병 환자들이야. 눈이 침

침하잖아. 햇볕에 나가면 눈 못 뜨고 속도 쓰리고. 가끔 폐결핵 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이런 거 맞잖아, 너 햇볕에 나가면 눈 잘 안 보이지?’라는 질문에 모두 ‘예’ 그래요. 아마 그렇게 체크가 되는 경우도 (웃음)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더 잘 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있는데 의사 표시는 유도된 경우가 좀 있었지 않나 싶죠.

이수호 그러니까 전태일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잖아요. 설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나 근무하나, 얼마 근무했으면 좋겠나, 이런 식이잖아요.

임현재 유도하죠.

이수호 유도죠. 한 달에 몇 번 쉬냐, 하루 쉰다. 몇 번 쉬면 좋겠냐, (웃음) 이런 식으로 쪽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의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현상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비당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승철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요. 지금 임현재 씨도 이야기했지만, 시다들 불러서 설문지 각 항에 대해서 한 문항씩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하는 대로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엔 주로 일요일에 놀 수 있다는 이야기로 유도해서 설문을 받았는데 신문에 그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안 노니까 우리만 보면 “오빠, 신문에 났는데 왜 안 놀아요? 그거 쓰면 논다고 그러더니” “응, 신문에 났으니까 곧 놀게 될 거야”라고 대답하기도 했는데, 조금은 압박을 받은 것도 있어요.

이수호 그렇죠.



**이승철** 이거 쓰면 일요일 논다더니 왜 안 노냐. (웃음)

**최종인** 당시 노동청장이 이승택이었어요. 노동청 출입기자들과 청장하고 약간 알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태일이를 굉장히 반겼고요. 자료를 가져오면 바로 기사 내주겠다고 해서 실태조사 설문지를 기자실에 줬던 거고.

기자 이름은 모르겠는데 기자들 중에서도 태일이라고 친하게 지내면서 아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태일이를 앞세우고 자료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 기자들이 자기들이 태일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얘기했다는 걸 들었어요. 노동청 출입기자들이 단결해서 이대로 태일이를 개죽음시키면 안 된다고 단단히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중앙정보부에서 하지 말라면 다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호** 그렇죠. 기자들에게는 중요한 취재원이고 또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고, 삼동회를 결성해서 실태조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전태일이니까.

**최종인** 제가 태일이를 따라 기자실에 몇 번 갔거든요. 기자들이 엄청 반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조언도 해주고 아는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태일이가 그런 과정에서 노동조건 개선이 안 되니까 충동적으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임현재** 그러기 전에 이미 삼각산에 가서 결단을 내리고 왔지.

**이승철** 일기를 보면 삼각산에 가서 그때 이미 죽겠다고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충동으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수호** 차근차근 그렇게 실행해 나가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의식 있는 기자가 있어서 태일이라고 교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임현재** 지금 보면 정말 중요한 특종감이었지.

## 2. 언론 보도와 그 이후

**이수호**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전태일은 삼동회가 주도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죠. 다음 날 경향신문과 다른 신문들에 평화시장의 참상에 대한 보도가 실리게 됩니다. 이 보도는 전태일과 삼동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봉제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을 가져다주게 됐죠. 삼동회 회원들이 근로조건 개선안을 가지고 평화시장주식회사 측과 협상을 하고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제안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또 그동안 체불된 임금도 받게 되는데요.

평화시장의 노동조건에 대한 경향신문의 보도 이후에 평화시장 인근의 분위기. 그러니까 평화시장주식회사를 비롯해서 업주들의 태도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염두에 두실 것은 보도 이후 평화시장의 업주와 노동

자들의 반응은 각각 어땠는지. 또는 근로조건 개선 협상을 하러 갔을 때 협상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 결과로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됐는지. 또 보도 이후 밀린 급여를 받으러 왕성사나 다른 사업장에 갔을 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사실 전태일도 왕성사에서 잘려서 다시 돈 받으러 갔었죠.

노동청 공무원들의 태도와 그들이 회원들에게 제안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평전에 대체로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실제 그 당시 상황은 어땠고 자기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이야기를, 임현재 선생님부터.

**임현재** 보도가 났을 때 신문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신문사까지 가서 최종인 시계를 맡겼죠.

**이수호** 잠깐만. 그 시계를 신문사에 맡기고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최종인** 신문사에 맡기고.

**이수호** 아. 신문사에, 전당포가 아니라.

**최종인** 신문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시계를 신문사에 맡기고 2~300부를 받았어요.

**이수호** 참, 그 당시 신문사는 좀 그러네요. 시계를 맡겨야 주고.

**이승철** 담보를 제공하고 가져온 거죠. (웃음)

**김영문** 팔아서 가져오겠다. (웃음)

**임현재**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삼동회 회원들이 다 모였죠. 그때는 엄청난 일이 터졌다 생각을 했던 거고. 신문에다가 빨간 크레용 같은 걸로 평화시장 기사특보라고 더 확대해서 신문을 돌렸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통로에서 팔기도 하고. 평전에도 쓰여 있지만 신문을 가져온 것 이상으로 돈이 회수가 됐어요. 그랬으니까 최종인 시계가 안 날아가고 팔뚝에 다시 돌아왔는데. 어찌 되었든 그렇게 했고. 그걸 계기로 평화시장에 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와 주식회사 사람들 거의 ‘아, 여기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분다, 새 시대가 온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인지 다다음 날인지 노동청 임정삼 국장이 근로감독관을 한 사람 대동해서 평화시장주식회사 사무실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고, 협상 비슷하게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죠. 그 시기가 시즌이 바뀔 때거든요. 음력 8월 추석을 계기로 업주가 전에 있던 사람을 그만두게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더 좋은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그만둔다든지 하는 시기였어요. 삼동회 회원들도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임정삼 국장이 우리 대표들한테 “당신은 어디서 일해?” 물어보니 “나 지금은 놀고 있어요”라고 대체적으로 아주 순진하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장이 당신들 정말 모범청년인데 노동절날 표창을 건의하겠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제시한 근로조건도 우리가 다 개선해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취직을 해라, 일을 해야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정말로 다들 부랴부랴 취직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임금협상에 대한 마무리가 덜 된 거죠. 그리고 원래 실력보다 임금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취직들을 다 했어요. 취직을 했어도 삼동회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했죠. 적극적으로 한 만큼 다 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 날짜가 일주일도 지났는데도 전혀 진척된 게 없어

서 다시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때 영 실망스러운 대답을 들은 거죠. 자기네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은 있지만 그 법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다 맞는 것도 아니다 등등.

실망 어린 대답을 듣고 모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논의하는 과정에 한 친구가 “야, 오늘 노동청 국정감사가 끝났단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망한 거라고 격분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더 크게 한 판 벌려야 되겠다는 분위기로 흘러갔었어요.

**이수호** 예. 참 바라던 신문보도가 나고 경향신문사에 뛰어가서 시계를 맡기고, 300부 가져오는데, 그 시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최종인** 없습니다. (웃음)

**이수호** 아이고, 있었으면.

**최종인** 신문사에 시계를 맡기고 300부를 받아서 시장으로 왔죠. 친구들하고 나눠서 여기저기 뿌리는데 5백 원도 받고 1천 원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짜로도 나눠 주고. 신문을 뿌릴 때 마음이 너무너무 들뜬 거예요. 이제는 이 지역이 개선이 되는구나, 일요일도 쉴 수 있고, 시간도 조금이나마 단축되고. 그렇게 생각하니 마구 설레서 평화시장 중앙에서부터 옛날 서울 음대까지 골목마다 신나게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때 기억은 너무 신났던 것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해냈구나, 보통 일이 아니다. 신명 나서 신문을 다 뿌렸죠.

그리고 태일리와 다른 사람이 회사 대표를 만나고 할 때 저는 뒤에서 지지하고 지원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태일리가 대단한 놈이다, 어마어마한

이곳을 우리 힘으로 바꾸다니, 태일이 힘으로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벅차서 감개가 무량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뭉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실망도 했지만.

임현재가 이야기했듯이 노동청이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실업자니까 취직해야 된다고 해서 각자 취직을 했지만 실망을 하게 되죠. 시간을 벌려고 속인 거죠. 개선이 안 됐죠. 그래서 태일이 통해서 10월 23일 그날, 제2차 데모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수호** 할 수밖에 없었다.

**최종인** 계획을 세워서 그때부터는 우리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 일을 하죠.

**이수호** 저는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종인 씨하고 승철 씨 보면 묘하게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앞으로 치고 나가면 뒤에서 받쳐주고. 콤비라고 하나? 서로 잘 맞는 짝인 것 같은데.

**최종인** 그때 콤비라고 하면 우리 셋이서 주도적으로 했죠. 신진철이는 우리 의견에 따라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태일이 의견을 무조건 따라갔어요. 태일리가 방향을 정하면 누구 하나 이견 없이 그렇게 하자고 의견이 일치돼요. 행동파들이었죠. 이 친구들은 각자 일을 했지만 저는 행동파들 중에서 유일하게 태일이하고 같이 행동한 사람이고.

**이수호** 다 취직하라고 했는데 취직도 안 하고. (웃음)

**최종인** 그럼요. 저는 취직 안 했지. 취직 안 하고 다녔지.



**이수호** 취직 안 하면 그때 돈 좀 모아서 주나? 어떻게?

**최종인** 안 줘요, 안 줘. 특별한 관계예요. 영문이기도 특별한 친구이고.

**이수호** 그렇죠. 신문 뿌리면서 들뜨고 이제 세상 달라지는 것 같다 하고.

**이승철** 그 이후 신문이 왔을 때 그전에 바보라고 했던 신기호 씨, 그 선배들한테 먼저 가져다주니까 1천 원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시장 통로에서 신문을 팔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소위 말하면 옷본을 뜨는 것을 가다종이라고 해요. 그게 사방 1m보다 크겠죠? 그걸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평화시장 기사특보라고 써서 영문이 같은 경우 목에다가 걸고, 바닥에다 놓고.

**김영문** 조끼식으로.

**이승철** 그러니까 구멍을 가운데 뚫어서 했으니까. 바닥에도 평화시장. 어떤 나이 먹은 재단사들은 한 2백 원 주면서 “보나마나 다들 병이 들었다고 했겠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때 반응은 아까 종인이가 이야기했듯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안 지켜졌지만 이제 금방 바뀌질 것이다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다음 날로 기억을 해요. 태일이가 기자랑 연락이 되고, 근로감독관이 평화시장에서 우리 대표들을 보잔다고 해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그때 나랑 영문이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태일리와 함께 셋이서 만나라고 얘기됐죠. 그래서 평화시장 옥상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로 갔어.

사장이 앉아 있던 회전의자를 끌고 와서 앉으라고 내주니 앉았죠. 그때 기억으로는 임정삼이가 일주일 내로 우리가 내건 요구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겠다고 했고, 사장들도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임정삼을 만났어. 그가 우리 셋에게 취직 안 한 사람들 있으면 취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강패들이라고 신용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취직해야 한다고. 난 노동절에 표창 준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취직을 했어요. 쉽게 말해 재단사 했던 사람이 재단보조로도 취직을 했어요. 주현민이도 임현재 씨랑 김영율이랑 같은 고향 쪽이예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삼동회에 많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해결되는 줄 알았지. 신문에 나고 3일 후에 중요한 일이 생겨요. 양태종하고 장경훈, 그리고 사장 동생이자 공장장이었던 사람까지 해서 세 명이 우리를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태일이가 가서 만났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자기네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 난 그때 노동조합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더러 도와달라고, 평화시장이나 동화시장 대표를 시켜준다고 그랬다고 해요.

그 이후에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생각하니까 그게 분회장이었어. 그때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속으로 우리가 판 다 만들어놨는데 이 새끼들이 뭐 자기네가 한다고, 우리가 위원장하면 몰라도, 무슨, 안 한다고.

**이수호** 그 소속 밑으로 들어오라고 했구나.

**이승철** 그 사람들에게 딱 잘라버리고 안 했어요. 일주일인가 지났어. 임정삼 국장이 시정하겠다고는 날짜가 지나고 국장이 다시 우리를 보자고 해서 우리 세 명이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그때가 10월 15일인지, 13일인지 14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만났

는데 한국의 실정이 어려워서 일요일에 쉬는 것과 근로시간 단축은 할 수 없다고. 대신 공장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모두 교체를 해주겠다, 그다음 환풍기 없는 곳에 환풍기를 달아주겠다, 이 두 가지는 금년에 하고 나머지는 차츰차츰 하자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열이 너무 난 거지.

돌아와서 회의에 그 이야기를 했고. 회의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그다음 날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회의를 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로시간은 얼마를 하나 하니까 근로시간은 여덟 시간까지 하고, 바쁠 때 두 시간은 연장근로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수당을 받겠다, 주라. 일요일은 꼭 쉬어야 되고, 건강진단은 다 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평화시장 옥상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달라고 하자. 우리 친구 중 한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위반한 사람 고발하는 일을 하도록 하자. 그 사람의 월급은 친구들 월급에서 10퍼센트를 걷어서 주자, 이런 결의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했어. 그런데 내가 회의 내용과 결의한 것들 회의록에 다 적어놨는데 절단이 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할 길이 없죠.

아까 종인이가 데모 이야기했는데 그때 우리는 데모를 잘 몰랐고. 한일협정반대 데모를 본 적은 있어도 그건 우리에게선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어. 그런데 태일이가 노동청 국정감사 할 때 데모를 하자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언제던가? 19일인지 20일쯤인지, 태일이가 노동청에서 보자고 해서 간다는 거야. 노동청을 갔다 온 날 우리가 또 만났어. 노동청에 갔더니 점심을 사주면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는 결국, “뭘 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해서 태일이가 “당신네들이 해주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럼 니들 알아서 해라”고 비슷하게 말했는가 봐. 열이 나서 “야, 그러면 국정감사에 데모하자”고 말하고 보니까 바로 그날 태일이를 데려가서 점심 먹이는 시간에 국정감사를 했더라고요.

**이수호**      감사날이었구나.

**이승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날 혹시 소란을 피울까 봐 이 사람들이 태일이를 데려다가 격리를 시킨 거지.

**최종인**      그때 동양방송인가 방송에 나왔어요.

**이승철**      그거는 안 나왔어.

**최종인**      아니 조금 난 것 같아, 기억이. 동양방송에서 평화시장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국정감사가 끝나니까 그쪽에서 개선 요구를 한 젊은 친구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투로 방송에 잠깐 난 것 같아.

**임현재**      그거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노조 결성을 한 다음에.

**이승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질의를 하면서 평화시장의 근로조건이 워낙 안 좋다는 말을 듣고는 당신들이 개선하겠다고 했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했었을 수는 있지.

**임현재**      그때는 우리 얘기를 각종 매스컴에서 취재하고 그럴 때였거든.

**최종인**      그때 기억이 나요. 동양방송에서 나왔다고.

**이수호** 지금 보니까 종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조끼처럼 만들어서 입고 신문을 돌리고.

**김영문** 조끼식으로 만들어서 ‘평화시장 특보’ 해가지고.

**이수호** 그 당시에 보니까 태일기도 왕성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뒤에 왕성사에 가서 밀린 봉급을 받아내잖아요.

**김영문** 점심시간에 가게 찾아가서.

**이수호** 그런저런 이야기 좀.

**김영문** 퇴근시간이니까 7시나 8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공장이 동화시장에 있었으니까 그 앞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이 평화시장 앞쪽이고.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가 이런 순으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죠. 저는 앞에서도 쪽 이야기했지만 진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게, 우리 친구들이 삼동회 활동을 다 같이해서 이뤄낸 일이었고 또 각자 자기 구역에서 신문을 팔았던 일들도 뿌듯했죠. 사실 전태일기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아, 이제 뭔가 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셋이 같이 만나 주식회사 사무실에 올라가서 최소한의 요구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 단축을 해달라’ 그리고 그때는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에 두 번 쉬었어요. 바쁠 때는 그것도 안 쉬고 계속했으니까. ‘주휴를 쉬게 해달라’ ‘환풍장치를 해달라’를 포함해서 예닐곱 사항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꼭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믿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개선될 조짐이 안 보이니까 10월 20일경에 결국 데모를 해야 되겠다고 태일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청으로 가자. 그런데 그것도 순조롭지 않아서 다시 23일인가 24일인가 하여튼 날을 잡아서 데모를 하자.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해야 하니까 데모를 하는 방법이 가장 낫겠다고. 그때 당시 대학생들 데모하는 걸 봤잖아요. 저희는 돈도 없고 그래서, (웃음) 종이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23일인가 24일인가에 데모를 하려고 했죠. 그랬는데 데모 장소에 가니까 역시 경비들이 곳곳에서 못 나오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아는 공장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일찍 나갔죠. 1시 20분으로 디데이를 잡고 우리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2층 경비실이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평화시장 건물 중간이잖아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는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오 형사가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야, 올라와라. 내가 주식회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올라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수호**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오니까. 어쨌든 이제 신문에 나고 평화시장주식회사 사장도 만나고. 요구사항 가지고 협상도 하고. 그런데 늘 계속 속았죠. 노동청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실행행사를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돈 못 받은 근로자들의 돈을 받아주기도 하고. 태일기도 그랬고. 그 부분에 더 기억나시는 거 있는지.

**임현재** 태일기가 왕성사에 가서 체불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난 기억이 안 나고. 우리가 삼동회 활동할 때 가장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은 일요일에 쉬는 것도 잊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근로시간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마음에 들어왔던 건, 그때는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잘라먹는 경우도 많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희망으로 생각되었던 거예요.

특히 나이 어린 시다들, 미싱사들.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었을 때 그 횡포는 더했어요. 그리고 월급 계산에서 월급날까지 일했던 10일치는 남아 있거든요. 그 외에 임금이 한 달이나 두 달 이상 밀려 있는 경우는 많았죠. 그런데 아무리 임금을 잘 주던 사람도 10일치가 남았는데 그걸 잘라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 친목회가 재단사들 조직이니 친목회가 가서 실행행사를 하자고. 시다가 직접 가서 밀린 월급 달라고 얘기 잘 못하죠. 사장이 “왜 왔니? 너 월급을 안 준 게 있구나”고 아는 척하기 전에는 말도 못 하고 마음만 졸이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죠. 그런데 당시 실질적으로 임금문제를 해결했거나 하는 경우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충격적인 활동이 아니었으니까. (웃음)

**최종인** 임금문제를 제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수호** 여기는 일요일 쉬는 거. (웃음)

**최종인** 사실 평화시장 제도가 미싱사가 시다들 월급을 주는 객공제 아닙니까. 그런 구조죠. 대체적으로 미싱사들이 사장에게 말하지 않고 그만둡니다. 말없이 나가면 월급을 못 받고 나가요. 그래서 월급 받으러 가면 선달그믐날 오라고 해요. 선달그믐이면 한 4개월이나 5개월 있다가 오라는 거요.

**임현재** 그건 안 주겠다는 말이지. (웃음)

**최종인** 그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포기를 해요. 그런 수법으로 임금을 못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노조 활동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임금채불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임현재가 대장, 이승철과 주로 간부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했죠. 당시 노사협의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죠.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대표, 노동조합 대표. 사용자 대표가 열댓 명, 노동조합 대표도 20대 어린 사람들로 열댓 명이고. 거기 지도위원이 40대, 그리고 그 사용자 대표하고 지도위원들하고 상대를 많이 하죠. 그런데 통인상가 옆 을지상가에 있는 한 사람이 사사건건 노사협의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간부들이 말은 좋게 해도 속으로는 ‘아, 저 사람 해도 너무한다,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모두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너는 언젠가 우리에게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품었었죠.

그런데 그의 공장 미싱사가 우리에게 진정서를 냅니다. 선달그믐날 오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진정서를 내는데 그 진정서를 가지고 노사 대표인 내가 사용주를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임금문제를 당일치기로 해결했어요. 특별위원회에서 주먹으로 치든지, 치고받든지, 전화해서 하든지.

**이승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우리가 주먹으로 해. (웃음) 말로 했지. (웃음) 지금 뭘 소리 하는 거야. (웃음)

**이수호** 이 내용은 뒤에 청계피복 시기니까.

**이승철** 그 이야기는 이후의 이야기니까.

**이수호** 그러니까 청계피복노조 결성하고 난 뒤에.

**최종인** 그거는 나중에 임금문제 나올 때 내가 이야기하는데. (웃음) 노사 대표가 진짜 그렇게 나와요.

**이승철** 그건 다음에 하라고.

**최종인** 아니 좀 해보자고. 해볼게.

**이수호** 해봐. 해봐. (웃음)

**최종인** 그 사람을 지금까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참 나쁜 사람이죠. 걸리기만 해봐라 했는데 진정서가 딱 들어왔잖아요. 사용주 대표니까 내가 상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깍뚝하게 “죄송합니다, 근로자를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했지.

**이수호** 그때는 웃도 얌전하게 입었다며. (웃음)

**최종인** 예. “이 애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충고를 하고, 그러나 임금은 줘야죠” 그러니까 바로 쌍년 하는 겁니다. 말없이 갔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야. 다시 한 번 얘기해, 야 쌍놈아, 다시 한 번 얘기해” 그러면서 치고받고 했는데 그 사람 진단이 4주가 나왔어요. 우리 사무실이 바로 옆이어서 사무실 직원들이 붙잡고 내가 발로 머리뺨을 찼어요.

**이수호** 어휴.

**최종인** 그래서 저도 경찰서에 갔는데 나는 내 무릎을 내 스스로

까서 2주 나온 거죠. (웃음) 심지어 노사협의회 대표도 임금을 안 주니까 체불임금 협상 과정이 그 정도로 심하게 있었다는 거죠. 임금에 중점을 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수호** 이런 경우에 아주 고급 용어로 오프더레코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상관없으니까. (웃음) 하여간 이진 뒤에 있었던 얘기이고.

**이승철** 그때 신문에 난 후 점심시간에 왕성사에 가서 태일이가 못 받은 돈을 받아내요. 그걸로 모임을 할 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도 먹고, 다방에 가서 차도 마시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받아준 적은 없고요.

**이수호** 그때는?

**이승철** 네. 그때는 없었고, 그런 경우는 노동조합 이후고. 신문에 보도가 나서 그때 분위기로는 사용주들의 심적 부담이 꽤 크지 않았을까.

**이수호** 졸았겠지?

**이승철**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게 워낙 대대적으로 신문에 떴으니까. 방송에도 나왔으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수호** 예, 어쨌든 신문에 나고 난 뒤의 분위기나 업주들의 태도, 노동청도 관심을 가지고.

**최종인**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질의하고 다뤘으니까. 임정삼 국장

은 없고.

### 3. 데모 계획과 좌절

**이수호** 어떻게 해결은 안 되고 간 거죠. 그럼 이 질문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언론 보도 이후 전태일과 친구들은 드디어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근로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노동청에서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에 실망한 전태일과 삼동회 회원들은 가만히 있기보다 데모를 통해서 실행행사를 계획하게 되죠.

하지만 평전에는 그 과정에서 업주들과 경찰, 노동청이 합세해서 회유나 협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해공작을 펼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일부 나오긴 했지만 전태일과 친구분들이 데모를 계획하게 된 사정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실 텐데요.

첫째, 데모를하기로 결정할 때 망설이는 회원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을 했는지. 당시 데모는 굉장히 과격한 이미지고 잘 안 해보던 건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호응의 정도는 어땠는지. 언론 보도 이후에는 회원 주위로 경찰들이 감시도 하고 사찰이 심해졌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또 경찰이나 업주들이 어떤 방식으로 회원들을 회유하고 방해했는지. 아까 국정감사일에 전태일을 데리고 밥을 사주면서 격리시킨 일도 있었는데. 또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등.

평전에 오 형사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오 형사 이야기와 도저히 근로조건 개선이 안 되겠으니까 우리 데모라도 하자고 했을 때 분위기를 염두에 두시고.

**최종인** 데모에 인원을 동원하는 데 우리는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전태일이 돌아가신 자리 그 자리가 조그만 광장이잖아요. 일부러 동원을 안 해도 인력시장이 있어서 1시부터 2시 사이 점심시간에 1천 명, 2천 명 모입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은 앞쪽에서 데모 준비를 하죠.

그 인력시장을 활용하면 사장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행동하는 사람들 열댓 명만 돼도 데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데모 계획을 잡았던 거고. 우리는 여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요구를 듣고 있다고 근로조건 개선하라고 고발을 했죠. 또 기자들이 그런 걸 원해요. 기사실에 가면 ‘너희 행동으로 해봐라’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 오 형사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승철** 오 형사가 아니고 마 형사 아니냐?

**최종인** 마 형사.

**이승철** 마 형사였던 거겠지. 나는 모르지만 마 형사였던 것 같아.

**이수호** 어떻게 평전에는 오 형사로.

**김영문** 나도 그 생각은 해. 평전에는 오 형사라고 나오는 것 같아.

**최종인** 마 형사는 평전에 오 형사라고 돼 있습니다. 평전에 오 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수호**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최종인** 중부서 정보과 시장 담당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보과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를 올리는데 당시 중앙정보부 시 대니까 정보과 활동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정보과 형사는 사복 입고 시장에 가서 대표자들을 만나는데, 그 상황이 시장 전체로 벌어지니까 집중적으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일이를 만나고 태일이 동향, 친구들의 동향이 어떤가 파악하고 감시했던 사람이 마 형사예요.

마 형사가 태일이랑 친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마 형사는 태일이를 살살 꼬셔서 ‘언제 뭘 하나’ 이런 정보를 얻어내거나 사전에 막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개선해 준다고,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몽땅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마 형사였어요.

**임현재** 우리는 그때만 하더라도 세상물정을 참 몰랐던 거죠.

**이수호** 순진했죠.

**임현재** 순진했죠. 마 형사가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그때 형사면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정보원으로 심어놓고 살살 조금씩 도와주고, 어찌다가 짜장면도 한 그릇 사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승철** 마 형사가 짜장면 사주고 그런 적이 없어. 내 기억으로는 마 형사가 우리를 만난 게 아니라 태일이만 만났지.

**임현재** 아니 그러니까 정보원들을 그렇게 활용한 거잖아요.

**김영문** 태일이는 만난 거 맞아.

**임현재** 그러면서 우리가 데모를 한다고 하면 자기는 그런 내용을 위에 다 보고했었을 텐데 정작 우리한테는 “야,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라고 충동질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보가 즉각즉각 새어 나가는 걸 알고 부터는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죠. 기자들이 흘렸을까 아니면 마 형사가 보고를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이후 태일이가 죽고 나서는 이 형사, 박 형사가 합류해서 세 명으로 증원이 되죠.

**이승철** 그건 노동조합 활동했을 이후고. 내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그때, 현재는 10월 23일인가 1차 데모가 저지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참여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잘 몰라요.

나는 서기를 담당했으니 늘 기록을 하고 나가서 알고 있고. 마 형사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최종인은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고. 태일이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너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내가 사용주에게 압력을 가해서 계획대로 해주도록 하겠다”고 했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순진했어요. 데모를 한다고 날을 잡으면 광장에 한 1천명 모이지만 평소에도 5백 명은 모여요. 그러니까 태일이가 “야, 거기 한 5백명 모이니까 우리 몇 사람만 가도 5백 명이 데모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 출입기자들한테 우리가 23일날 5백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한다고 전했죠.

그런데 아까 영문이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예요. 기자들이 미리 2층 경비실에 와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니면서 순진하게 데모한다는 이야기 대신 “야, 점심시간에 밑에서 재미있는 거 하니까 구경와라”고 주변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우리가 순진했지, 뭘 모르니까 말만 안 했지 행동은 다 드러났는데.

내가 겪은 거니까 각각 다를 수 있어요. 23일 그날 1시쯤 데모를 한다고 해서 점심을 먹지 않고 평화시장 3층으로 불나게 갔어요. 당시 플래카드가 두 개 있었는데 종이로 만든 거였어요. 태일이가 맡아서 가지고 있었죠. 이제 생각하니 그때 마 형사였는가 봐. 그런데 태일이가 그 사람하고 소곤 소곤 이야기하더니 그 사람이 플래카드를 주라고 했는지 그걸 주는 것 같더라고. 그때 누가 옆에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기에 개가 아주 실망한 눈빛으로 “야, 내려가 있어. 오늘 데모 못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경비원들이 몽둥이들 들고 두 명씩 짝짝 서 있어. 어린 심정에 겁도 났는데 못 하게 됐다고 하니까 저는 또 일하러 돌아갔고.

그래서 그날 저녁인지 그다음 날 저녁인지 우리가 다시 회의를 해요. 그때 신진철이가 그랬어요. “야, 데모고 뭐고 우리들 몽둥이 들고 평화시장 입구, 동화시장 입구에 서서 아침에 오는 애들 싸그리 출근 못 하게 지키고 있으면 되지. 뭘 우리가 기다리고 있냐”고 신진철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진철이 그 애가 좀 와일드해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13일날 데모를 하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제안이나 계획은 무조건 오케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다른 의견이 없었고 태일이가 하자는 대로 모두 거기에 따랐죠. 이번 데모에는 플래카드도 천으로 만들고 또 각자 백 원씩을 건자고 해서 백 원씩 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과궤짝 같은 거 갖다놓고 자기가 위에서 구호를 외치면 너네는 따라서 하면 된다.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안 지켜지니까 화 형식을 하자. 그래서 휘발유를 사자고 결의를 했었어요.

**이수호** 그건 그 뒤의 일이고요. 전태일이 다시 평화시장에 내려와서 실태조사를 하고 노동청에 진정도 내고 또 그게 보도도 되었고. 거기다 오 형사인지 마 형사인지가 중간에서 마치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고 저

렇고 했는데 계속 안 된 거죠. 그래서 다 안 되니까 전태일이 “안 된다, 우리 데모하자” 이런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땐 단순한 데모였을 텐데, 그 당시 데모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수단이잖아요. 경험도 없고.

**최종인** 우리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느끼지도 못했어요. 태일이가 데모한다니까, 데모라는 건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자. 다들 우리만 쳐다보고 있다고. 누가 쳐다보고 있냐고 물으니, 기자들이 쳐다보고 있다니까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지. 데모하면 뭐가 결정되는 걸로 보지 않았죠.

우리는 근로환경의 실태를 고발했고, 동조하고 지지한 기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태일이의 의견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수호** 그게 원래 데모의 뜻이죠. 시위하는 거니까.

**최종인**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자고,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다 찬성해서 그날 1시 20분까지 모여라,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데모를 시작했죠.

**이수호** 그 데모라는 게 일종의 수단이기도 한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행동으로 하자는. 그런데 데모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데모? 우리가 해도 되는 건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데모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부담은 없었는지.

**김영문** 사실은 종인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데모라는 것에 겁을 먹는다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첫 번째 데모를 계획했을 때도 태일이가

플래카드를 만들어 보여주려고 미리 기자들을 불렀어요. 그때는 종이로 플래카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위에서 마 형사인지 오 형사인지가.

**이수호** 그날이라는 건 지금 11월 13일?

**김영문**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첫 번째.

**이수호** 10월 23일. 실제로 그것도 실패로 끝나는 거죠?

**김영문**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의견이 조금 다른데, 우리는 그때 경비실 바로 아래에서 모였어요.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부른 거예요. “야, 너네들 올라와. 내가 이야기를 할 거니까 같이 올라가자”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무실로 올라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수호** 어떻게 기억은 그렇다?

**김영문** 그렇게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웃음)

**이수호** 예. 그건 뭐.

**이승철** 아까 말씀에 데모라고 하면 시가행진한다든지 여러 수단이 있잖아요. 태일이가 데모를 하자고 했을 때 “데모는 뭘 하는 거냐?”고 물었죠. 거기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것은, 플래카드에 써둔 구호만 외치면 된다는 거야.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구호만 외치면 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겁나는 것은 (웃음) 없었죠.

**김영문** 사진 찍혀서 신문에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그 생각만 한 거죠.

**임현재** 모르면 안 무섭지, 뭐. (웃음)

**김영문** 몰랐으니까, 데모라는 자체도.

**이수호** 그러면 결정적으로 10월 23일날 무산된 거는 오 형사인지 마 형사인지 그 친구가 중간에서 잡고.

**김영문** 그래서 사무실을 올라간 기억이 나거든.

**이수호** 못 하게 만들고.

**임현재** 그 친구 실적만 올린 거지.

**이수호** 그는 이용해 먹고, 우리는 순진하게 그 친구 말 듣다가 안 돼버린 거죠.

**최종인** 10월 23일 1차 데모 때부터 11월 13일까지 기간이 꽤 길죠. 20일인가 되잖아요.

**이수호** 그사이 또 한 번 하려고 했죠?



**최종인** 그 중간에 의견들이 또 한 번 하려고 했고.

**김영문** 이제 11월 초에 한 번.

**최종인** 의견들이 좀 달랐죠. 친구들의 의견도 어렵다는 반응이었고. 시장 상황이 험악하게 돌아가니까 시장에서 우리 친구들 낙인찍혀서 영원히 낙오되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서 우려됐죠.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평화시장 문제를 계속 다루었어요. 2차 데모가 13일로 잡혔는데 그 중간에 태일이가 한 번 더 하자고 의견을 내서 우리가 동조했죠. 그런데 하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었던 사람도 있고 해서 중단된 것도 있고.

또 마 형사의 감시도 있고 노동청에서 파견 나와서 하나씩 개선시킬 테니까 참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서서히 개선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개선이 될 걸로 알았는데, 태일이가 보기에는 개선의 반응이 전혀 안 보이니까 마지막 데모 계획으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자. 근로기준법 이 자체가 다 필요 없다'고 결정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며 11월 13일 데모 계획이 세워진 거죠.

**이수호**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휴식)

#### 4. 분신항거

**이수호** 예. 이제 운명의 11월 13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태일이 다시 평화시장으로 와서 55일. 참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또 굉장히 길었던. 그러면서 많은 일이 일어났고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바꾸는 바탕이 되는 기간에 지금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전태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역사에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죠.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웃음) 후대에 많은 분들이 '그때 그랬었구나' 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든 경찰과 공무원, 업주들의 방해로 데모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전태일은 드디어 11월 13일을 실행일로 삼고 회원들과 역할 분담을 통해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11월 13일 당일, 이미 시장 경비원들과 경찰들이 시장을 지키고 노동자들을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삼동회 회원들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시작했지만 경찰들에게 플래카드를 빼앗기고 구타를 당해 끌려가게 됩니다. 경찰의 방해로 시위가 무위로 끝날 것 같아 전태일은 잠시 혼자 있겠다며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근로기준법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태우고 구호를 외치며 쓰러지게 됩니다.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기억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기억에 따라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조영래 변호사가 그날의 상황을 평전에 정리해 놓았는데 그것만이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를 비롯해서 조영래 변호사와 인터뷰를 한 분도 여기 계시지만 꼭 평전과 일치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까 큰 흐름은 조영래 변호사가 쓴 그 흐름에 맡겨놓고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화형식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데모 상황은 어땠는지. 전태일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쓰러질 때까지의 과정과 분신을 목격하거나 소식을 들은 이후 각자의 생각이 어땠는지.

그리고 분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있었던 데모의 상황. 경찰과 기자들, 시장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등 많은 분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종인 씨가 먼저 입을.

**최종인** 그날 상황을 얘기하면 너무 비극적이라 저는 눈물이 납니다. (눈물) 그날 기자들한테 우리들 얘기를 전부 알리자고 해서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데모를 준비하느라 전날 모두 여관방에서 잤어요. 모두가 법이 필요 없으니까 근로기준법을 화형식하자고 결의를 하죠. 그리고 당일날 1시 20분까지 시장 앞에서 모이는데 사전에 저지를 당하고 전부 막아버려서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시장 한구석에서 불덩이가 튀어나와요. 누군고 했더니 태일이예요. 태일이가 그 모습으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아. (눈물) 불을 뒤집어쓰고 튀어나왔는데 너무 모습이…. 그대로 벌떡 서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칩니다. 그러고는 쓰러져요. 그때 신진철이 김영문이 옆에 있었는지 신진철이와 제가 옷을 벗어서 불을 꺼요. 제 잠바를 벗어서 끄니다. 그러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서 또 외쳐요.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그런데 그 모습이 눈썹은 다 타고 입술이 튀어나오고. 머리는 나일론 천

으로 (눈물) 범벅이 됐는데 벌떡 일어나서 외쳐. 그 광경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 어디에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시다. 어머니의 귀에 그 모습에 대한 말이 들어갈까 봐….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제가 글로 써서 그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가 세 번째인데, 세 번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비극적이고. (눈물) 우리가 죽인 것 아니냐, 우리가 데모를 하자고 해서 우리가 죽인 거라고.

그 죄책감에 우리는 태일이를 개죽음시키면 안 된다고 친구들이 모입니다. 한쪽에 대학천 상가라고 있습니다. 그쪽 골목에 열 명 정도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이대로 태일이 혼자 놔두고 가면 안 된다고 백지에다 혈서를 씁니다. 저도 혈서를 썼는데 지금도 그 손가락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하라,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2차 데모를 해요.

태일이의 그 모습을 나는 정확하게 봤어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힘겨워서 말을 못 해요. 감정이 북받쳐서 목맙니다. (눈물) 그 모습을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지난 역사니까 얘기를 하죠. 그 모습이 비참할 정도로…. (눈물) 더 이상 얘기 못 합니다.

**이수호** 예. 우리 현재 씨는 마침 그전에 사고를 당해서 현장에는 없었죠. 우리 머리 식힐 겸해서 그전의 상황이나 그리고 소식은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

**임현재** 저는 10월 23일 우리 데모가 실패하고 저녁에 다시 2차 모임을 하기 위해서 대학천 상가를 건너가는 중에 야간 장사하러 나오는 포장마차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분들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이빨이 부러지고 빠졌다고 신고해서 제가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사이 이 모든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전태일 분신 이후 어느 정도 장례가 수습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었을 때, 그때 알았죠. 그때는 구치소 안에 바깥 사정이나 정보가 지금처럼 공개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쪽 모르고 있다가 그때 나오면서 그 충격적인 상황을.... 친구들이 왔었는데 승철이, 종인이 두 사람은 뚜렷이 기억이 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단다.

**이승철** 양승조가 다녔어. 너한테,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했어.

**임현재** 그랬지. 그 비보를 접하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지요. 그리고 나와서 합류를 하고 그때부터 쪽 전태일 운동에 동참을 해왔었죠. 그 전에 있었던 얘기는 삼동회 결의를 통해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이라든지, 1차 데모 후에 2차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까지는 같이 공유를 했었고요.

그 충격적인 장면을 겪은 종인이가 사실은 엄청난 쇼크에 휩싸였고. 그 일에 대해 굉장한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사명감이 완벽하게 굳혀진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이끌고 그 어려운 과정을 헤쳐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지내왔었죠.

**이수호** 승철 씨는 그 당시에 여관에 모여서 집회 준비를 하며 같이 자기도 했고, 하여간 10월 23일 실패 이후의 상황에 대한 승철 씨의 기억과 느낌 등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승철** 23일 그날에 대해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태일이는 나를 개인 승철이로 생각하기보다 모임의 서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 보고는 좀 일찍 나오라고 했던 것 같아. 23일 1시에 3층에 갔었고. 그래서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했지. 그리고 내려와 있었는데 태일이가 다가와서는 “데모 못 하게 됐다”고 해서 나는 돌아갔고요. 그때 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엄청 바빴습니다.

1월과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가 시장은 대목이에요. 그전까지는 겨울 옷을 팔고 크리스마스 지나면 겨울 물건을 안 만들어요. 그해 10월이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일이 엄청 바쁠 때였어요. 그래서 1시에 나갔다 못 하게 돼서 제가 다시 공장에 돌아왔었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11월 초 이야기인데요. 모임에서 데모를 하자는 했는데 데모 일정에 대해 11월 초에 하자 말자 분분하다가 11월 13일로 날짜를 잡았고. 백 원씩 걷자고 의견 통일했고. 나는 개인적으로 태일이고 내 공장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1월 13일 며칠 전, 그러니까 우리가 백 원씩 내기로 했던 모임 2~3일 뒤에 태일이가 우리 공장에 왔었어. 따로 받으러 다닐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백 원을 받으러 왔어.

내 일하던 공장이 통일상가였거든요. 1층은 물건 판매하는 가게고 그 위에 다락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금방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못 되죠. 업주들이 밑에 앉아 있는데 내가 있는 곳으로 오려면 업주를 지나쳐서 다락을 올라와야 되니까 잘 오질 않죠. 태일이가 며칠 앞두고 찾아와서 백 원을 받으며 “하여튼 그날 근로기준법 화형식하고 자기가 구호 외치면 구호만 따라서 하면 돼”라고 말해서 “어, 알았어” 했죠. 태일이는 그러고 갔고요.

그리고 11월 13일에 데모하러 갔다가 또 못 한다고 해서 오늘도 못 하나 보다고 생각하고, 나는 일이 바빠서 공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시쯤 됐나 밑에서 시끌시끌 뭐라고 말소리도 들려. 누가 불을 질렀니 어쨌니 그러네. 나는 태일이가 죽었다고는 생각도 안 했고. 아, 화형식을 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3시쯤 되니까 신진철이가 왔어. 신진철이가 와서 딱 하는 얘기가, 그때



개 말투로 하면 “야, 승철아 태일이 타부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죽었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야, 태일이 타부렀다” “똥 소리야?” 그러니까 “응, 개가 지 몸에 불 질르고 지 몸 태워서 지금 병원에 가버렸다”고.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탔다면 상당히 심각해지기는 했겠다 싶은데 내가 그때 병원에 가봐야겠다든지 개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고 그냥 일만 했어요. 그리고 신진철이는 30분 있다 가고. 그날은 그랬어요.

그날 13일이 금요일이었는데 다음 날 토요일 저녁에 종인이가 집으로 왔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2시 반에 진철이랑 해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혈서를 쓰고 데모를 하다가 조병섭인가 하고 둘이 경찰에 잡혀갔대. 다른 사람들은 안 잡혔고. 그리고 거기서 구류, 즉결에 넘어갔는데 벌금 5천 원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한국노총 국제부 차장인가 하는 김성길이가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그때 나한테 종인이 말로는 “내 친구들이 한 2~300명이 있다. 난 나가서 끝까지 싸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하고 벌금을 내줘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쉬는 날이어서 종인이랑 같이 10시쯤 성모병원에 갔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수호** 어떻게 우리 영문 씨가 그날 가까이 계셨고, 전태일 분신 항거 이후에 어머니를 모시러 창동까지 가서 모시고 왔는데, 그 과정은.

**김영문**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순간은 잊히지가 않습니다.

**이수호** 너무 강한 충격이니까 그렇죠.

**김영문** 예. 그날 3층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경비실은 2층이고, 3층에 왕성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죠. 친구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전날 모임에서 이야기됐던 것이 근로기준법 필요 없으니 화형식을 하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휘발유도 준비를 해야 하고, 플래카드도 형짚으로 만들자고 해서 그것도 만들어야 했죠. 전날 밤에 제가 듣기로는 태일이 가 가까운 곳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자기가 거기서 자고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여튼 평화시장 3층에서 만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할 일이나 어떻게 할지 언제쯤 내려갈 건지 등등. 사람들이 모이면 내려가는 거다 하면서 플래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경찰이 올라온 거예요. 아래층 경비실에 있다가 3층으로 올라와서, “너네들 이거 불법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면서 플래카드를 뺏으려고 하니까 서로 실랑이를 했죠. 결국 플래카드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태일이 “다 담배 가게로 내려가 있어라”라고 해서 저희는 다 내려왔습니다. 한 5분, 10분 사이인 것 같아요. 전태일이 정문으로 내려오면서 담배 가게 앞에 서 있는 우리 중에 나를 불러요. “야, 영문아 이리 와” 하더니 반대쪽으로 걸어가요, 국민은행 쪽으로. 제가 그 뒤를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태일이랑 나랑 1m 정도쯤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말릴 새도 없었어요. 순식간이잖아요. 딱 몇 초예요.

**이수호** 불덩이가 튀어나오는.

**김영문** 그래서 불을 딱 붙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휘

발유 뿌리고 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불이 바로 붙어버리니까요. 그날 1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뛰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태일다리 동판 만들어 놓은 곳. 그간에 저는 그 상황에 대해 참 많이도 인터뷰했습니다. 동판 만들면서도 했고,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고. 그렇게 튀어나가니까 불꽃이 얼마나 쏘겠어요. 종인이도 얘기했듯이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니까 친구들이 보고 뛰어왔어요. 불덩어리가 튀어나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같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작업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벗을 옷이 없었는데 최종인이하고 진철이는 잠바를 입었던 것 같아요. 옷을 벗어서 누르고 끄는데 사실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실에서 소화기를 들고 내려왔어요. 소화기로 마지막 불씨를 잡고 나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눈도 뒤집어지고 입도 뒤집어지고 머리도 완전히.... 그리고 움직이는데 기자들이 쫓아와서 인터뷰를 해요. 말은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말할 정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 사람들도 많았고 시끄러웠고. 그러다 구급차가 와서 신고 메디컬센터로 가고, 나는 창동으로 가게 됩니다.

창동이 야산처럼 생겼어요. 뒤로 돌아가서 쌍문동 꼭대기에 판잣집이 있었어요. 그리로 조금 올라가니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같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알고 나오셨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방송에서 들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못 하겠잖아요. “네, 괜찮을 겁니다, 가시죠”라고만.

제가 택시를 타고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아니다, 버스를 타자.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메디컬센터로 가죠. 당시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아마 당신이 뭔가 생각을



이소선 어머니 창동 집 앞에서, 1987년, 전태일재단.



후생식당에서 조합원들 국수를 팔아주는 어머니, 1974년, 전태일재단.

정리하려고 버스를 타셨던 건 아닌가 싶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시장 주식회사 사람들과 기자들인지 하여튼 모여서 웅성웅성해요. 우리 친구들은 그 자리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만 들어가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 기억이에요.

그 뒤로 다시 데모를 했던 과정은 최종인이가 잘 아는 거고. 신진철이, 조병섭이, 주현민이를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최종인** 2차 데모가 열댓 명쯤 됐어요.

**이수호** 그러니까 실려가고 난 후?

**최종인** 네. 앰블런스가 실어가고.

**이수호** 혈서는?

**최종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여덟 시간.

**이수호** 실려가고?

**임현재** 데모하기 전에.

**이수호** 그러니까 실려가고 데모하기 전에 혈서부터 썼다?

**최종인** 실려가고 난 후 데모하기 전에 혈서를 썼죠.

**이승철** 병원에 가고, 떠나고.

**최종인** 두 사람. 저하고 또 한 사람하고 둘이 혈서를 썼어요.

**이승철** 진철이가 썼더라고. 진철이라 하더라고.

**최종인** 진철이야?

**이승철** 그게 구호를 두 개 썼는데, 하나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  
다야.

**김영문** 그렇지. 그게 우리가 쓰려던 거였으니까.

**이승철**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 두 개를 썼다고  
내가 들었어.

**최종인** 혈서를 쓰고 데모를 했어요.

**이수호** 열다섯 명이?

**최종인** 그쪽에서 모인 사람이 열다섯 명 정도 돼요.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우린 어떻게 하나, 이 상황을 사회에 고발해야 된다. 당시 기자들이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차 데모는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다가 저는 붙잡혀서 경찰서로 연행이 됐죠.

그 당시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있었어요. 한국노총의 국제부 차장



이라는 사람이 경찰서로 저를 찾아옵니다. 아까 승철이가 이야기했는데 경찰서로 와서 “당신 전태일 친구냐?” “그렇다” 하니까 녹음을 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수천 명의 전태일 친구들이 있는데 수천 명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나중에 김성길이 한국노총에 가서 녹음을 다시 들어보며 우리 조직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초대 지부장입니다. 청계노조 지부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애가 건국대학교 학생회장을 했고,

**이승철**      한양대학교야. 한양대학교.

**최종인**      한양대학교 학생회장을 했고, 종로5가가 집이에요. 종로5가가 집이어서 평화시장 실태를 잘 알아요. 그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즉결재판에 넘어갔죠.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 낼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 종일 잡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윤영재라고 있어요. 국제부 차장하는 김성길이와 윤영재 씨도 당시 우리를 엄청나게 도왔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어요. 그 당시 최용수가 노총 위원장이었는데 윤영재 사무총장하고 둘이 중부서로 찾아와서 벌금을 내고 나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요. 밥을 먹으면서 “태일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얘기를 안 해. 김성길이가 저한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죽었다고. 밥 먹다가 제가 오열을 합니다. (눈물)

그리고 그 길로 성모병원으로 갑니다. 성모병원으로 가면서도 오열을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 끝까지 싸울 것이다’ 결의를 하게 됩니다. 성모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저를 잡고 울면서 하소연

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당시 어머니의 시가 쪽, 태일이 작은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작은아버지가 병원에 와서 친구들이 태일을 죽였다고 저희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희를 붙잡고 “저이를 어떻게 하냐”고 해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라고 말한 그때부터 어머니 아들이 됩니다. 그 병원에서부터 어머니 아들이라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아들이 됩니다. 그 시작부터 끝까지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리고 저랑 이승철이 어머니 집에서 1년 동안 기거하며 같이 살았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아들로 살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장례식 못 한다고 해서 저는 그 상황을 쫓 지켜보았죠. 당시 장기표라는 사람이 서울대 법대생인데 학생회장이었나 봐요. 저는 당시 서울대 학생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장기표는 어머니만 만나고 친구들은 안 만납니다. 한 대학생이 “문리대에 학생들을 모아놔는데, 학생들한테 평화시장 실태를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부녀부장으로 활동한 김명례하고 나하고 같이 갑니다. 어머니 집 옆에 김명례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알고 김명례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도왔어요.

두 사람이서 동숭동 서울대로 가서 학생들을 모았는데 한 4~50명 모여 있더라고. 구멍으로 들어가서 평화시장 실태에 대해 얘기하고, 그렇게 돌아다녔었죠. 그리고 학생들이 장례식을 학생장으로 하자고 제안해서 어머니도 학생장으로 받아들였어요. 정부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정부와 밀고 당기는 교섭 과정이 있었지. 그런데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수호**      예, 그건 다음 시간. 분신항거 이후에서부터 11월 27일 청계피복노조 건설될 때까지. 진짜 드라마틱한 아주 극적인 며칠간인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분신항거 때까지.

어떻든 분신항거의 과정을 현장에서 바로 목격하신 두 선생님은 그걸 회

상하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형편에 그때 무슨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평전과 일치하는 부분은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인**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얘기를 못 했죠.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태일이야 그냥 분신해서 갔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죠. 그 과정을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 영문이, 저, 신진철이. 그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복잡하죠.... 복잡해서 이야기를 잘 못해요.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지난번에 그날 그 상황을 기록한다고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한마디하고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수호** 그래요. 하여간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전태일이 처음엔 메디컬센터로 갔다가 거기서 안 되니까 여의도 성모병원.

**김영문** 아니, 명동이야. 명동.

**이수호** 예, 명동이죠 명동. 지금은 여의도로 갔죠. 명동성모병원으로 옮기고 나서도 계속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러다 평전에 의하면 그날 저녁 10시경에 영면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다시, 태일이 실려가고 생사도 모르지만 태일이의 뜻을 이어서 어떻게든 데모를 해야 된다고, 하려던 일은 계속해야 한다 해서 혈서를 쓰고.

**최종인**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판단이 든 거죠. 20대였던 우리로서는 무서운 것도 없었고,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장이 죽어버리니까 큰일 났다, 생각이 든 거죠.

**이수호** (웃음) 아까도 잠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12제자 이야기. 기독교의 예수의 삶과 비교하면서 글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고 그 무렵에 제자들이 다 튀어버렸어요. 다 도망갔어. 베드로라는 수제자도 “나, 예수 모른다,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고. 그런데 베드로보다 낫네. (웃음)

**최종인** 그러네. (웃음) 종교는 잘 모르고.

**임현재** 그 행동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수호** 그러니까 도망가든지 아니면 영문 씨처럼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든지. 이 두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 같아.

**임현재** 어쩌면 사측이나 노동청 쪽은 해프닝 정도로 메꾸고 싶었던 세력들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친구들이 혈서를 쓰고 다시 저항을 함으로써 사측 및 관계기관에서 안 올 수 없었던 거고. 그 사람들이 그런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어머니는 더 절실히 느끼신 거고. 그래서 그런 타협이나 매수에 동조하지 않으셨고. 하여튼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굉장한 계기가 되었다고 봐요.

**김영문** 저는 이 최종인이라는 친구가 당시 놀고 있었고, 그래서 더 같이 움직일 수 있었기도 했지만 정의파였기에 끌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호** 여기 계신 분들 다 정의파죠.

**김영문** 네, 그렇죠. 그런데도 최종인이가 정말로 정의로웠기 때문에 어머니와 친구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았나, 아마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친했으면 나한테도 와서 노동조합을 하자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거든.

**이수호** 그 당시는 삼총사.

**김영문** 그렇지. 여기 셋은 같이 일을 했고, 나는 바보회 때부터 참여하긴 했지만 사실 친하지 않아요. 그때는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공장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최종인** 평소에 진철이 옆의 셋은 등산모임을 쭉 해왔는데 다들 개성이 다릅니다, 개성이. 현재는 장수고, 예를 들어 승철이는 아주 비상한 사람이고.

**이수호** 조조?

**최종인** 아니, 우리가 이제.

**이수호** 좋은 의미로. 유비

**최종인** 좋은 의미로 조조. 삼국지를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지도위원이라는 사람이 삼국지를 세 번씩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삼국지를 읽어야 일을 해나갈 수 있다 해서.

**이승철** 그래서 삼국지 읽고 많이 느꼈나. 나는 4학년 때 삼국지도 읽고, 수호지도 읽고.

**최종인** 나는 그때 삼국지 읽었어. (웃음)

**이승철** 그때 소공자, 소공녀도 읽었고. 내가 최고 많이 읽었던 것은 이조 500년 야사라는 책이 있어. 그걸 봐서 시인 김삿갓, 암행어사 박문수 이런 걸 알지. 그리고 장희빈이라든지 역사 속 야사를 많이 알아.

어찌 되었든 태일이가 죽었을 때 내가 받은 느낌은 괜히 회장을 시켜서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일기랑 편지를 보고 ‘아! 그는 정말 시다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을 받았고. 아까 말했듯이 종인이가 그 문제에 발 벗고 나서니까 같이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고. 늘 같이 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에서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벌금을 내고 어머니한테 들렀다가 집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토요일 저녁에 집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그다음 날 우리가.

**최종인** 너네 집은 안 갔고.

**이승철** 왔어. 그래서 나하고 둘이 성모병원에 갔잖아. 젊은 친구들이 쫓아 나와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죽었으니까 책임 져라 하는 것을 어머니가 말렸고. 아까 이야기했던 작은아버지란 사람은 부산에서 근로감독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어머니하고 한 번 가본 적도 있어. 부산에 당일로 갔다가 해운대 해수욕장 한 번 돌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네 깡패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위협적이었지. 그건 내 기억을 믿어.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병원에서 나와서 네가 어머니한테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동화시장 신기호 씨한테 갔어. 신기호 씨에게 갔는데 지금도 생생해. “니들이 회장시키고 해서 그렇게 죽었으니까 니들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하나” 이런 말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종인이는 다시 성모병원으로 가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 우리 집에 안 왔고. 나는 공장에 다니면서 일했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할 때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누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적극적으로 활동했어.

우리 사장이 나를 인정하고 있었는지 활동한다니 재단기를 사줬어. “재단사요, 이걸 빨리 해놓고 가서 일 보세요”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가입원서도 받고 조합비도 받고. 그리고 공장장한테 부탁해서 40명쯤 되는 사람들의 가입원서와 조합비를 다 받아냈지. 내가 그렇게 활동을 했죠.

**이수호** 네. 뒤에. 아까 승철 씨 이야기에 13일날 제대로 하자, 플래카드도 천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백 원씩 내기로 하고. 백 원을 받으러 승철 씨 일하는 공장에 태일이가 처음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백 원은 대충 지금으로 얼마일까?

**이승철** 백 원이 그리 적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임현재가 나하고 무지하게 친했잖아요. 그런데 구속이 돼 있었어요. 면회를 가려면 평일에 가야 돼. 그런데 양승조라고 있어요. 양승조가 누구냐면 우리 형수씨 큰언니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형수씨가 이모인데 같이 살았어. 최종인, 나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승조는 휴지 만드는 공장에 다녔는데요. 휴지를 일명 곰보 형태로 만드는 기계가 있었어. 어찌다 그 기계 속으로 손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 손이 뭉개져서 병원에 갔는데 배 부분의 피부를 손에 이식한다고 그거 기다리느라 집에 있을 때야. 임현

재는 서대문구치소에 있었고, 나는 일 때문에 평일에 면회를 갈 수 없어서 내가 승조에게 “승조야, 내 친구가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 니가 내 대신 면회를 가라”고 했어. 그래서 많이 줄 때는 2백 원 없을 때는 백 원도 주고.

현재가 나와서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저렇게 오는 친구가 어딴냐고. 그러니까 승조가 나한테, 내가 2백 원을 줬을 때는 건빵을 넣어줬다고 하고, 백 원을 줬을 때는 차비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계속 면회를 다녔어요.

**이수호** 지금 1만 원은 되겠다.

**이승철** 그때 백 원은 건빵 한 봉지 샀을 정도니까 모르겠는데.  
(웃음)

**임현재** 아. 1만 원 정도.

**이승철** 그 돈을 건넸었는데. 아까 종인이가 우리가 합숙했다고 하는데, 저는 합숙? 그런 건 몰라. 지금 영문이도 모르죠?

**김영문** 합숙 안 했어.

**이수호** 합숙은 아니고 그냥 여관에 같이 잤다.

**이승철** 태일이가 다른 곳에서 플래카드를 천으로 만들어 온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 삼동회 회원들만 있었는데, 종인이가 같이 있었는데는 모르겠지만 합숙한 적은 없어요.



이수호      전날 밤에?

김영문      12일 밤에 모임을 하고, 가까운 데에 누가 있었어.

이승철      12일 밤에, 그러니까 돈 걷은 일은 훨씬 전에 결의를 해서 걷었고.

이수호      내가 그걸 왜 다시 물어보냐면, 그게 꼭 백 원을 받으러 갔을까. 겸사겸사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랬겠지.

이승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결정을 안 했던 거야. 기억이 나는 게 태일이가 플래카드를 두 개 만드는데 하나는 옥상에서 길게 늘어뜨려 보이게 하고, 하나는 양옆으로 펼쳐는 걸로 한다고 나한테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옥상에서 누가 그걸 내릴 건가 담당을 정해야 하는데 그런 결의는 안 하고, 두 개를 만든다고만 내가 기억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플래카드에 무슨 내용을 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안 됐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두 개를 만들어 오겠다고만.

이수호      자, 어떻든 시간 순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병원으로 가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계속 시위를 이어가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승철 씨는 공장에 있었고, 현재 씨는 구치소에 있었고, 여하튼 상황은 발전하는데 그날 저녁에 두 분이 다시 병원으로.

이승철      아니. 제 기억으로는 13일이 금요일이었고, 토요일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들어갔더니 종언이가 왔더라고요.

이수호      아, 토요일 저녁.

이승철      내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죠. 시신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성모병원에 있다”고 해요. 내 기억으로는 나하고 둘이서 10시쯤 명동성모병원에 갔던 걸로 생각나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강패들이 설치니까 어머니가 나서서 “니들 왜 그러냐”고 막았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태일이 얼굴 좀 한번 보겠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 죽은 집 가서 물도 못 마실 정도로 좀.

이수호      여렸구나?

이승철      겁이 많았다고나 할까요. 겁 많은 마음에 태일이 보겠냐고 하니깐 새까맣게 탔다는데 그걸 보면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보겠습니다” 했죠.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안 보겠다면 달아라”고 했던 것을 내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로서는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태일이 사건 이후에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음식도 잘 먹고 그래요. 그 이후로 내 마음이 아주 완전히 짝 바뀌어버렸어.

이수호      그때 바뀌어버렸구나.

이승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죽은 사람 봐도 아무렇지 않게 변했다는 거지.

이수호      오히려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영문 씨가 어머니 모시고 와서 태일이한테 가고. 메디컬센터에서 명동성모병원으로 옮기고

돌아가시게 되는 그때까지의 과정을 좀.

**김영문** 저는 그 부분에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당시에 가족, 어머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주식회사 직원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고, 그때 친구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어. 그런데 한 시간이나 기다렸는데도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러다 갑자기 공장이 마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라도 있으면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저는 공장으로 간 거예요.

**이수호** 아, 그날 저녁에 다시 공장으로.

**김영문** 그렇죠. 공장에 다시 갔죠. 그때 우리 공장은 제가 총책임을 맡고 있어서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공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이승철** 아, 그리고 참. 어머니가 말씀한 것 중 하나인데요. 평전에 보면 태일이가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약속을 해달라고 했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죽을 때 태일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을까 혼자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 태일이가 죽으면서 친구들과 뜻을 합해서 어머니,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거든. 그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래, 너 걱정 마라 우리가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어. (웃음)

**김영문** 내가 보기에는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태일이의 그때 상태는 절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13일 상황은 메디컬센터 응급실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성모병원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승철** 그러니까 종인이 같은 경우도 2시 30분에 데모했다가 연행됐고. 그런데 그 죽으려는 순간에 어떤 친구들을 모아 놓고 그 말을 했는가인데 들은 사람이 없어요. (웃음) 다만 내가 보기에는.

**이수호** 하여간 옆에 있는 사람, 어머니가 이야기하신 거니까.

**김영문** 그렇지. 다른 사람도.

**이승철** 하튼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과 뜻을 합해서 어머니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했다 하니까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 (웃음)

**이수호** 평전은 어떻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김영문** 한마디만 더할게요. 13일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의 생각인데 사실 그때 데모를 제대로 해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했으면 아마 전태일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었다. 플래카드를 위에서 빼앗기게 되니 ‘또 실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내려가 있으라고 말하고, 자기가 결단을 하고 석유를 뿌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제 앞에서 불을 붙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도 전태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빠짐없이 어디든지 가서 얘기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호** 그 말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태일은 그전에도 ‘아, 이거 몇 명 죽어야 해결될 문제다’라거나 또 ‘이건 그냥 쉽사리 될 일은 아니다’라고도 썼던 내용이 여러 기록에 나와 있죠.

**김영문** 저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수호** 각오를 해야 된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몸을 바쳐서라도 해야 된다.

**김영문** 네. 나중에 일기에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일기를 보니까.

**이수호** 여러 가지 단계를 필요로 하는데, 계속 막혀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몸을 바칠 때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김영문**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 엄청나게 고뇌를 한 거죠.

**최종인** 그런데.

**이승철** 잠깐만. 내 생각은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자고 할 때 어쨌든 이미 자기가 죽으려고 각오를 했었을 수도 있었다고 봐. 왜냐면 플래카드만 보더라도 “이승철 니가 위에서 내려” 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근로기준법 화형식하고 내가 구호를 외치면 너희는 따라서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자기가 죽겠다고 하면 누가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좌절해서라기보다 자기가 그날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최종인** 우리가 죽으려는 생각을 알았다면 데모를 하겠어요? 우리가? 조금도 협조를 안 하지.

**이수호** 그렇지. 혼자 각오를 하고 있는 거지.

**최종인** 본인 각오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이수호** 그러니까.

**김영문** 그럼요. 본인이 고뇌를 한 거죠.

**최종인** 저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데 몸을 불사른 과정을 보면 처음에 불덩어리로 내뿜고 그다음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불이 꺼질 때쯤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죠.

이건 상상할수록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생각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애를 개 죽음시키면 안 된다는 각오로 친구들을 모두 규합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나서자고 결의했죠. 그 뒤로 50년 되는 오늘까지 태일리와 관계되는 어떤 일이든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죄인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태일리만 보내고, 태일리에 대해 이렇니 저렇니 얘기하는 자체도 미안하고 죄스러운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미안할 따름이지. 그때 태일이

가 자기가 죽으려는 생각을 했다면 그날 데모에 절대 동조 안 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비극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수호** 그래요. 이제 병원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다가 마지막으로 배가 고프다, 아마 어머니가 증언을 하셨겠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참 다른 울림으로 오는 말입니다. 어쨌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고, 그 과정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는 거고. 그런데 여기 계신 네 분 친구는 병원에 실려가서 숨을 거둘 때까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상황이 알려진 그다음 날 병원으로 뛰어가고, 다시 여러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여간 우여곡절도 많고 또 다른 의미도 있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러면서 11월 27일 청계피복노조가 그 짧은 기간 동안 힘을 모아서 결성이 되는데.

**최종인** 그 당시 장례를 일주일 있다가 했잖아요.

**이승철** 아니 18일.

**최종인** 응?

**이승철** 18일날 장례를 치렀어.

**이수호**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최종인** 일주일 정도 되는데.

**이승철** 그러니까 5일.

**최종인**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봐요. 어머니가 노동청에서 주관한 장례를 거부했죠. 사용자 대표들이 조문을 오는데 봉투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사용자 대표들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시작하게 됐죠. 학생회 애들이 학생장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어머니가 받아들여서 학생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죠.

그 당시는 박정희 시대, 정보부 시대로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했죠. 그런 시대인데도 태일이의 죽음은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죠. 그 상황들이 신문 이랑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 정보부에서도 쉽게 압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 5. 전태일과의 기억

**이수호** 장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전태일평전』을 따라서 쪽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선생님들은 어디에 계셨고, 무슨 생각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열사님 분신항거하고 돌아가신 지점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이외에 더 보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또는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는 것들 있으면 하시죠.

**임현재**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서만? 그 시간 내에서?



**이수호**      아니 지난 이야기도 좋고, 오늘 것도 좋고.

**임현재**      그동안 사연 사연마다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옛날을 회상하며 기억나는 것들 이야기 다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종인이가 그때 대처를 잘했어요. 까딱 잘못했으면 역사에서 잊힐 뻔한 사건일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불꽃을 잘 살려냈고, 그래서 오늘에 전태일을 부활시키지 않았는가 그나마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수호**      승철 씨, 뭐?

**이승철**      전태일, 그를 55일간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은 내 인생에 운명적인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배움이 있었고 또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태일이 유언 중에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를 인생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근로감독관이나 정부한테 하는 이야기였고,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양심 있는 수많은 지식인들의 마음을 끌어낸 계기가 된 거죠. 일기에 보면 ‘굴리다 굴리다 못 굴린 덩어리를 자네들이 굴려주게’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겨우 한 10년,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저 자신이 어떻든 부끄럽고요.

어디에서든 전태일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증언을 해달라 그럴 때마다 느껴요. 나는 투사가 아니고 그 시대의 증인일 뿐이거든요. 오늘까지 여섯 번, 일곱 번? 아니 다섯 번 했네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아이구 저 새끼 무슨 전태일 친구란 새끼가 사기나 치고 다니고”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사실은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을 때 내가 나가면 누가 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기는 해요.

그런데 워낙 현대사에 큰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나서는 것뿐이죠. 어떨 때는 전태일 친구로 나선다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썩 내키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수호**      영문 씨는.

**김영문**      저는 여태까지 항시 죄인처럼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태일이 죽고 나서도 바로 합류를 못 하고 일을 했었죠. 그게 좀 미안했고. 그다음 해 71년도에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입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대하고 보니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요. 한 편으로는 이 친구들이 부르면 나는 언제고 꼭 합류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 말이 뇌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무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계현이나 다른 친구들이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는 반드시 내가 간다고, 왜?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증언을 해야 한다고 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오늘 이 자리까지 같이 있지 않나.

최종인이가 78년도에 노동조합 지부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정말 나는 여태까지 죄스럽게 산 것을 아, 지금이라도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았죠.

그래서 어느 때나 누구한테라도 똑같이 말합니다. 한번은 명보다방에서 인터뷰를 했던 경우인데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친구의 죽음을 정말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했지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찾값을 내기도 했고요. 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수호      종인 씨.

**최종인**      태일이 이야기하면 전 항상 가슴이 아파요. 한편으로는 끝까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스럽고,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죽어야 될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나 개인의 삶으로 빠져버린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죠. 전태일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정의를 알았고, 사고방식이 바뀌었죠.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나 부당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나서지는 못했어요.

제가 태일이 문제로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어떤 문제로 저더러 앞장서 달라고 하면 미안한 마음부터 들어요. 내가 노조 활동이나 노동운동을 계속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를 못했으니.

지금은 제가 남은 가족을 챙기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승철이 어머니를 제일 먼저 챙기면서 다른 친구들도 같이했지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살아왔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같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매 명절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인사 다녔어요. 어머니가 일이 생기면 의논하러 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일을 제쳐 놓고 쫓아나가요. 그렇게 어머니 일에 앞장서서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족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남은 가족에는 전순옥, 전순덕, 전태삼이 있는데, 그 집 동기간은 개성이 특별합니다. 각기 개성이 남달라요. 태일이하고 비슷해요. 전순옥이도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전태삼이도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잖아요. 나는 약간 못마땅하기도 해요. 그래도 나는 지금 행복해요. 전태삼이를 지킬 수 있고, 그 가족이 잘못 가더라도 묵인하고 넘어가자 생각하면서 챙길 수 있으니까요. 여기 이승철이 영문이 현재도 제 생각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의견이 일치되

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예요. 재단에 문제가 생겨도 친구들끼리 의견이 비슷해서 잘 뭉쳐요. 아마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그 가족을 항상 챙기고 보아왔는데 지금은 가족한테 서운한 점도 있고, 전태삼이한테도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은 이수호 이사장님을 전태일재단의 이사장님으로 모신 거예요.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 친구들과 다시 지난 시간을 더듬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이수호      잘 나가시다가 또. (웃음)

**최종인**      잘 나가다가? 실제로.

**김영문**      그게 정답이죠. (웃음)

**최종인**      그리고 여기 전태일기념관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남은 인생은 얼마 안 되겠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임현재**      제가 하나 빠뜨린 이야기가 있어요. 종인이도 그 이야기를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요. 전태일 친구들 몇 명이 전태일 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예요. 우리 2만 7천 조합원들이 정말 하나같이 열심히 목숨 건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수호      (웃음) 예. 그래요. 또 다른 얘기는 한 차례 남았으니까 그

때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 우리 작가님, 보충 질문.

**김대현** 예.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었는데요. 한국 근현대사를 압축한 역사 속의 한 페이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서 특별히 보충할 건 없었는데요.

한 가지 정도 궁금했던 건, 전태일 열사가 분신에 이르시기 전에 그 상황을 평전에는 경찰들이 구타를 하고 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상황이 평전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했는지. 혹은 구호를 외쳐도 주변 분들의 반응이 없었거나 어떤 다른 반응이 있었는지 그 정도가 궁금합니다.

**이승철** 태일이 분신하기 전에는 경찰들이 우리 친구를 잡아가거나 구타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거 아냐?

**최종인** 그래 맞아. 그건 없었어.

**이승철** 그건 평전에 그렇게 쓰여 있을 뿐이지 그런 일은 없었고. 태일이 실려가고 나서 한 시간 후 그러니까 2시 반에 최종인이, 조병섭이, 신진철이 데모할 때인데 구타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신진철과 최종인이 문방구에서 종이를 사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혈서를 쓰고 데모하다가 최종인이하고 조병섭이 잡혀갔다고, 그 뒤에 진철이가 나한테 와서 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문** 제가 아까 처음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3층에서 플래카드를 뺏기는 순간 실랑이는 했어도 구타하거나 폭력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호** 경찰이 폭력적이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김영문** 예. 그런데 플래카드를 뺏기고 나서 태일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수호** 예. 어쨌든 경찰이 막 무력을 사용해서 방해하고 폭력을 가하거나.

**최종인** 당시는 기동대가 없었으니까.

**이수호**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이승철** 경비원들이 밑에서 다 지키고 있었고.

**김영문** 못 나오게.

**이수호** 지키고 있었는데 폭력을 가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

**김영문** 없어요. 3층에 와서 그걸 뺏어가는 상황.

**이수호** 어쨌든 그 당시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우리 촬영감독님은 뭐?

**허철녕** 없습니다.

**이수호**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끝으로 평전의 제

일 마지막이자 어떻게 보면 전태일이 우리들에게 남긴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평전』 제 일 마지막이죠. 청옥 시절의 동창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았다.

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이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해주게. 원석이와 재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받지 않을지도 모르는, 양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다 못 굴린 덩이를, 덩이를 묵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다, 굴리는 데, 굴리는 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를 수만 있다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